

모 두 발 언

2016. 7. 20(수) 09:00~10:20
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

※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
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금융위원회 부위원장
정 은 보

1. 모두 발언

- ☐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- 제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
외국계 금융사 대표분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
- ☐ 오늘 간담회는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
증대된 상황에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함께 점검하고,
-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
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.
- ☐ 아울러,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규제 개혁이 글로벌
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수렴하고,
- 외국계 금융회사의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
금융당국과의 소통채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
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
2. 그간의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

- ☐ 잘 아시다시피, 한국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
‘현장중심의 2단계 금융개혁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특히, 많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이었던 정보처리 위탁
관련 규제개선 및 외은지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였고,
- 외국인 통합계좌(omnibus account)를 도입하여 24년만에
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제도개선 성과가
있었다고 평가합니다.

□ 그러나, 최근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.

- 이러한 한국시장 철수의 배경에는 외국계 본사의 경영전략의 변화, 수익성 전망 악화 및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등의 영향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,
-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우리의 금융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부족한 면은 없는지 되돌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
□ 이를 위해 한국의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갈 점이 없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가감없는 정책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.

3. 외국계 금융회사와 소통채널 강화

□ 그간 금융당국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 애로사항 및 제도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분기별 회의(Quarterly Meeting) 개최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해 왔습니다.

- 금융당국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논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.

□ 특히,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외국계 금융회사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논의를 강화할 계획이며,

- 현장점검팀, 로펌, 금감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「외국계 금융회사 비즈니스 애로해소 TF」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.

□ 또한, 실제 이행상황을 오늘과 같은 회의를 통해 지속 점검하고 피드백을 받겠습니다.

4. 마무리 발언

□ 한국정부는 개방화·국제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으며, 금융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는 우리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

□ 금융당국은 현재 운영중인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활동에서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,

-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□ 외국계 금융회사 입장에서 한국시장이 보다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감없는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립니다.

- 다시 한번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